

# 죽산 뉴우스

## 농가소득 증가율 점차 둔화경향 — 전년대비 18.2%만 늘어 —

79년중 우리나라 농가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2백 22만 7천 5백원으로 전년대비 18.2%의 증가에 그쳐 농가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가구당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익이 2백 2만 7천 2백원으로 전년보다 14.6% 늘었으나 농업경영비가 49만 5천 9백원으로 19.9% 증가함으로써 12.9%의 증가율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농업외 소득은 69만 6천 2백원으로 전년보다 31.7%나 급증,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농외 소득이 처음으로 30%선을 돌파, 31.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체적으로 전년의 1백 88만 4천 2백원에 비해 18.2%의 증

가에 그쳐 78년의 23.9%, 77년의 32.5%에 비해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쌀 흥작등으로 농작물의 수입증가율이 14.6%에 머물렀고 축산 양잠등 농작물이외 수입도 16.4%증가에 그친 반면 비료 농약등 자재비와 노임등이 크게 올라 농가 지출이 31.7%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농가소득증가 둔화현상에 따라 농가소득에서 각종 조세공과금과 가계비 지출, 차입금 이자등을 뺀 농가의 순이익은 연45만 9백82원으로 78년의 48만 4천 7백 1원에 비해 오히려 7.5%인 3만 3천 7백19원이 줄어듬으로써 농가가계수지는 오히려 악화됐다.

연도별 농가소득 동향

(단위 : 원)

연도	농 가 소 득	농업 소 득			농업 외 소 득		
		금 액 (A - B)	농업조수익 A	경 영 비 B	금 액 (C + D)	겸업소득 C	사업외소득 D
77	1,432.8(32.5)	1,036.1	1,333.6	297.5	396.7	39.4	357.3
78	1,884.2(23.9)	1,355.7	1,769.1	413.4	528.5	44.0	484.5
79	2,227.5(18.2)	1,531.3	2,027.2	495.9	696.2	44.2	652.0

(괄호안은 증가율, 단위 : %)

## 농산물품평회 입상 농산물 전시회 개최

— 농업 기술자 협회 11월 5일부터 6일간 —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총재: 류달영)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 및 도시소비자 계도를 위해 제 2회 전국 농산물품평회 입상 농산물 전시회를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3층 특별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오는 11월 5일(수)부터 10일(월)까지 개최

되는 이번 전시회는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녹색혁명에 앞장선 농민들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채소·과수·유기농업 부산물이 전시되어 소비자의 관심은 물론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 고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농수산부, 불법도축 행위 엄단

— 양축농가 보호 육성 위해

사회정화 차원서 단속 —



(정종택 농수산부장관)

정종택 농수산부 장관은 아직도 도축업계 일부에서는 최근의 사회 정화운동을 외면하고 새끼밴 소나 송아지를 잡는 등 불법도축행위를 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물 유통을 크게 흐리게 하고 있음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 앞으로 이러한 불법도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날 전국 3백50개소의 도축업자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최근 새시대, 새질서를 맞아 그동안 사회의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는 모든 부조리를 말끔히 씻어내는 이때에 특히 도축업계만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고 하여 아직도 일부의 옳지못한 불법도축행위를 그대로 남겨 두거나 눈감아 넘길 수 없다고 정부는 새끼밴 소나 1년 미만의 어린 송아지의 도축과 소에 물을 먹이는 행위, 허가없이 도축하는 모든 불법 도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지난 수년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육류 소비증가에 따라 육류가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나 돼지를 크게 번식시켜 오는 시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류의 중간 공급을 맡고 있는 일부 도축업계에서 새끼밴 소나 송아지를 마구잡이로 잡아 종식을 크게 저해해왔고 불법도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부조리를 유발시켜 왔다고 말하고 부족한 韓牛 등 양축농가를 보호 육성하고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축산 시책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추진위해 전문 연구소 설치

### — 농진청 등 2원화된 기구 통합 —



△ 농업기계화는 우리 농업에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과제이다

농수산부는 농업 기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자재검사소 등으로 양분되어 있는 기계화 추진기구를 통합, 국립 농업 기계화 연구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농수산부가 마련중인 농업 기계화 사업지침에 의하면 신설 된 국립 농업기계화 연구소는 농촌진흥청의 농기구 검사과와 차재검사소의 기능을 합한 것으로 농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은 물론 보급 및 검사기능 까지 담당하게 된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독자 기구를 만들어 농업 기계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농기계 사용 실적이 적어 농촌진흥청과 차재검사소의 부속업무로 추진되어 왔다.

농수산부는 이 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86년 까지 기계화 가능 면적의 90%를 완전 기계화 하며 각도에 1개씩의 종합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읍면마다 1개씩의 사후봉사 센터 등을 설치키로 했다.

##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건립

### — 서울시, 82년 까지 5백 94억 투입 —

서울시는 전근대적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시민 기호에 알맞는 신선한 식품을 신속히 공급하여 수급조절과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강동구 가락동에 대규모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을 건립 키로 했다.

시는 이미 그 기본 계획을 끝내고 년내로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 내년초에 착공, 82

년 말까지 완성하여 83년 초에 개장 할 예정으로 있다.

시가 마련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총부지 16만 6천 4백평에 내자 3백 54억 외자 2백 40억 총 5백 94억을 투입, 연 전평 5만 6천평을 건립하여 청과물시장·수산시장·양곡시장·식육시장 등을 구분, 명실공히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으로 육성 할 계획이다.

## 식품대형업체 육가공, 식용유 등 제품 다양화

### — 식품업계 종합 생산 체제로 전환 —

제일제당, 삼양식품, 서울미원, 롯데 등 국내 대형 식품 메이커들이 최근 각자별로 그동안 미 진출분야였던 육가공, 유가공, 식용유 생산등 잇달아 신규참여를 하고 있어 식품 산업의 종합 콤비나트화 추진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식품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 자체가 8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산업으로 점차 치열해 질 국내 시장확보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각자의 업종별 다변화 시책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자본력이 있는 대형 메이커가 각 품목별 참여 경쟁으로 군소 메이커들은 경쟁력 상실로 식품 산업의 세대교체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설탕의 제일제당은 제분·조미료에 이어 식용유·육가공 등 60여 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종합식품 업체로 라면의 삼양식품이 스낵·간장, 식용유에 이어 유가공품 등 총 1백여 가지의 품목을 생산하는 종합식품 콤비나트를 형성했다. 껌으로 출발한 롯데는 파자, 통조림, 주류 등에 이어 육가공 공장을 완공, 소시지, 햄 등의 생산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조미료 선발업체인 서울 미원의 경우 미국의 세계적인 식품업체 CPC사와 제휴 스프류, 마요네즈, 푸딩, 콘오일, 마가린, 요구르트 까지 생산 할 계획으로 있어 활발한 종합식품 메이커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기타 해태, 斗山그룹 등도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보

하여 명실상부한 식품산업의 콤비나트화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식품업계의 이같은 콤비나트화 경향과 더불어 80년대의 국내 식품산업은 대기업 중심에 의한 다각 경영이 치열하게 전개돼 군소 기업의 도산 및 식품산업 대형화 경향이 급속히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진드기약 개발 성공

### — 경남대 이종태 교수 —

가축과 인체에 각종 질병을 옮기는 진드기를 구제할 수 있는 생약이 경남대학 이종태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교수가 3년간 실험 연구한 결과 개발에 성공한 생약은 맹자, 여귀초, 약쑥, 무파화, 제비꽃 뿌리, 할미꽃 뿌리, 익모초, 담배풀초 등 30여 종류의 원료를 사용해 만든 즙이나 끓여서 만든 생약제를 진드기가 붙어 있는 한우와 젖소 등에 시험 살포한 결과 빠른 시간내에 진드기가 구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우유 소비촉진 지시

### — 학교급식도 높이기로 —

정종택 농수산부 장관은 최근 남아들고 있는 우유소비를 늘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우유 급식을 권장해 줄 것을 전국 9천 2백여 초·중·고교장과 시군 교육장에게 지시했다.

지난 13일 전장관은 전국 초·중·고 교장과 시군 교육장에게 현재 8천t에 달하고 있

는 우유 소비를 위해 각급 학교는 우유 급식을 늘리고 각 관공서 및 산하단체에서도 손님 접대시에 코피등 보다는 우유를 사용해 달라고 서한을 통해 촉구했다. 전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코피는 5천 7백 77t으로 금액으로는 1천 9백 55만 2천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우유를 사용하면 이를 줄이고 코피를 끓이는 비용도 덜수 있다고 주장하고 우선 산하기관에 전열기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바브콕원종농원 시찰단 출국

### — 양계인, 부화인, 사료 관계자 등으로 구성 —

한일농원과 한일 사료(주)에서는 양계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료공업이 발전을 위해 양축가, 부화인, 사료공장 종사자로 구성된 선진 양계지 시찰단을 파견 하였다.

지난 10월 31일 출국하여 오는 11월 20일 경 귀국 예정인 이번 시찰단을 미국 최신 시설의 바브콕원종 농장을 견학하는 한편 미국

의 주요 산란계 농장, 브로일러 처리 가공시설, 양계산물 유통, 사육현황 등 광범위한 선진의 양계업을 견학하여 업계 발전에 큰 기여를 기대하는 바 크다.

특히 이번 일선 실용계 농장의 관계자들의 참가는 선진국의 새로운 사양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이 무엇 보다도 시급한 우리 양계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일농원은 이번 시찰단에 직원 해외 연수에 많은 지원을 한바 있다.

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태경(한일사료 생산부장)

유영재(한일농원 농장장)

홍경의(부산 한일부화장 과장)

송두진(지산 부화장 대표)

송태백(전국 대학교 축산대학 학생)

이태근(일산농장 대표)

김 현(무궁화농장 대표)

최병국(화성 축산 대표)



△ 양계인·부화인·사료관계자로 구성된 미국 바브콕 원종농장 시찰단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 80년도 가을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예정

— 오는 29일, 가축위생 연구소 회의실에서 —



(오세정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

세계 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 오세정) 는 1980년도 가을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안양소재 가축위생 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 및 정기총회에 회원들과 유관 기관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논의 될 세미나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배합사료의 품질개선 방안…한인규박사 (서울농대)
  - 계육의 가공이용 소비촉진 방안… 이유방 박사 (KIST)
  - 양계장 실태조사 보고(위생과 질병 중심으로 생산성 조사)…박근식 과장(가축위생 연구소)
  - 마리병 예방에 관하여…최병옥 연구관 (가축위생 연구소)
  - 뉴캐슬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접종 경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이학철교수(영남대)
- 이날 계육소비 촉진을 위한 KIST의 신개 발품인 계육가공품의 시식회도 갖을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것은(안양 전화) 2-2151~5로 문의하면 된다.

## 12월 11일부터 농업센서스 실시

— 농수산부,

전국 2만 351개 지역서 —

농수산부는 농업경영 구조를 파악, 앞으로의 농업개발 계획은 물론, 국가 종합 경제계획과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농업센서스를 12월 11일부터 20일 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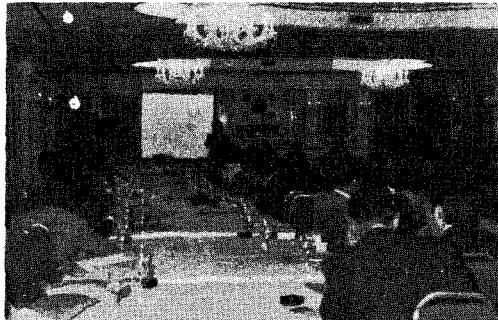
전국을 2만 3백 51개 지역으로 나눠 농가 단위조사와 지역 단위조사로 구분 실시되는 이번 농업센서스에서는 농가수·농업인구·농경지·작물생산·농기계보유수·농산물 유통구조·농업용수 시설 등 농업전반에 걸쳐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 60년도에 시작한 이래 70년도에 이어 세번째 실시하는 농업센서스는 80년 12월 11일 0시를 기준, 전국 2만 3백 51개 지역으로 나눠 1개 조사구를 1명의 조사원이 담당, 농업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게된다.

---

---

##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병세 미나 개최 — 한풍산업, 서울과 부산에서 성황리에 끝내 —



한풍산업(주) (대표: 최죽송)은 최근 불황에서 허덕이는 사료생산업과 양계, 양돈업에도움을 주기 위해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합사료에 있어서 항생제 첨가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15일(수)과 17일(금)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 하였다.

닭 돼지의 세균성 질병에 대한 고찰, 영양을 중심으로 본 최근의 돼지 질병의 발생동향, 새끼 돼지의 병원성 대장균 설사병, 일본에서의 Clostridium균에 의한 닭 질병의 소개와 최근 일본의 배합사료 첨가용 항생제의 이용 방향 등이 거론된 본 세미나에서는 학계, 배합사료 업계, 양축가 등 관련 업계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

서울에서는 호텔 롯데 2층 에미럴드룸에서 부산은 부산진구 서면 문화관광 호텔 그릴에서 개최된 본 세미나에는 강사로 박근식과장(가축위생 연구소 계역과), 권영방 연구관(가축위생 연구소 병리연구 담당관실), 김봉환 교수(경상대 농대), 일본의成田喜久雄 학술부장(旭化成工業(주))이 초빙 되었다.

---

## 창립 5주년 사원 수련대회 개최 — 종양약품, 유공사원 표창도 —

종양약품(대표: 김무진)은 회사 창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원도 설악산 및 동해안에서 전 사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원 수련대회를 개최 하였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간 개최된 이번 수련 대회는 전사원의 융화 단결과 회사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동사는 이번 수련 대회에서 유공사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 하였다.

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낙필(영업부 부장)

조윤환(영업부 차장)

이성우(생산부 주임)



## 제1회 전국 양돈 세미나 성료

### — 80년대 한국 양돈의 발전 방향에 관한 집중 토의 —

한국 양돈 연구회(회장: 윤희진)는 오늘날 양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산지식을 토대로 해 80년대를 향한 한국 양돈발전의 지표 설정을 위해 제 1회 전국 양돈 세미나를 지난 10일 여의도 소재 전국 경제인 연합회 국제 회의장에서 전국 양돈가가 모인 가운데 대한 양돈협회와 한국 종축개량협회 후원으로 개최 하였다.

「80년대 한국 양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을 나눈 이번 세미나는 장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축산의 불황을 슬기로 극복하기 위해 양돈에 관한 깊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

1.2부로 나누어 개최 된 이날 세미나 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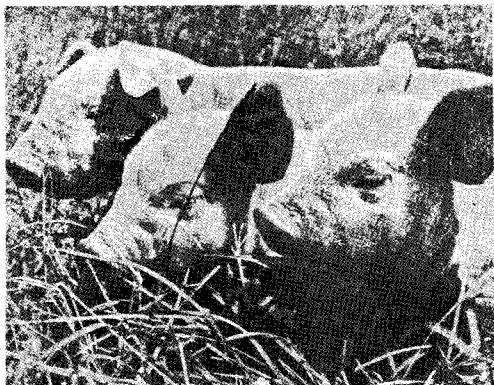
#### 〈제 1부〉

1. 80년대의 양돈정책.....  
    지설하(농수산부 축산국장)
2. 한국 양돈의 안정대책.....  
    윤도진(이천 제일농장 대표)
3. 돈육 유통 구조의 개선 방향.....

김성훈(중앙대 교수)

#### 〈제 2부〉

1. 종돈 개량의 방향과 대책.....  
    박태진(국립 종축장 과장)
2. 양돈 사양 기술의 개선 방안.....  
    윤희진(제일 종축농장 대표)
3. 양돈 질병의 방역 대책.....  
    홍문표(대동 농장장)
4. 양돈 경영의 근대화 방안.....  
    정영철(제일제당 양돈 사업부)



## 농업고교 교과 개편 — 자영농 양성유도 —

정부는 농촌의 자립영농인 양성을 위해 농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편 농고출신학생 모두가 농업기계화요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농업에 관한 경영과 기술을 결합한 영농

설계 교육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10월31일 상오 진주 농림 전문대학에서 열린 제 9 차 영농학생 전진대회에 보낸 치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이 요청되는 때인 만큼 영농의 과학화와 영농 후계자의 양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 현대약품, 영국 ICI 사와 기술 제휴

### — 동물약품 전 품목 독점 계약 —

현대약품 (대표이사 : 진수창)은 영국의 ICI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사와 동물약품 전 품목에 대한 독점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 동사는 현재까지의 동물약품 생산 발매에 이어 새로운 신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현대 약품이 ICI 사와 기술 제휴한 동물 약품에는 동물 약품 개발에 있어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까지 일컬어지는 푸로스타 그란딘 주제의 동물분만 조절제 “플라네이트” “에스트루메이트” 및 백신 등의 생물학적 제재, 일반 기생충은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까지도 박멸시킬 수 있는 초 광범위 구충제 “닐범”, “닐잔”, “잔널”, 유방염 치료제 “히비텍스”, 살충제 “악테릭”, 살균제 “사부론”, “님로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플라네이트, 에스트루메이트는 ICI 사에서 생체물질 푸로스타그란딘을 최초로 합성 하는데 성공, 개발한 동물분만 조절약으로 “플라네이트”는 돼지 분만을 조절하며, “에스트루메이트”는 유우, 미경산유우, 육우 등의 분만을 조절하는데, 분만 시기의 임의 결정, 사산 또는 유산방지, 적정 영양공급, 건강수태 및 출산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축산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닐범”, “닐잔”, “잔널” 등은 소 및 양의 회충, 촌충은 물론 잔흡충, 폐흡충을 박멸시킬 수 있는 강력 구충제로 구미에 널

리 알려져 있다.

이번에 현대 약품과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ICI 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대한 세계적 기업이며, 동물약품, 일반의 약품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섬유화학, 염료 안료, 노벨화학 회사 등을 망라한 종합 화학 기업체로 영국 랭킹 1위, 유럽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세계 100여 개국에 지사 또는 기술 제휴 회사를 갖고 있어 현대약품이 이 거대한 판매망을 활용 기왕의 세계 시장 진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약품은 영국의 ICI사와 동물약품 전 품목에 대한 독점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 영농 후계자 양성소 설립

— 농수산부, 1년간 무료 교육 후 정착 금도 지원 —

농수산부는 새마을 청소년회를 농어촌 영농 후계자로 육성키 위해 내년부터 경기·강원 등 9개도에 1년코스 농어촌 영농 후계자 전문 양성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영농 기술을 가르치는 한편 수료 후 농어촌 정착 자금을 1인당 5백만원 까지 지원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청장년의 농어촌 정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새마을 청소년회를 현재의 약 1만 9천개소 33만명에서 오는 85년 까지는 전국 리·동 단위 법정부락 3만 3천개소에 모두 설치, 1백만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농어촌 영농 후계자로 육성할 방침에 따라 이제 까지 시도 단위별로 1~7일 까지 단기 교육을 실시해 왔던 새마을 청소년 교육을 개선, 내년부터 전국 9개도에 전문 양성소를 신설

하여 체계적인 영농후계자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농어촌 영농 후계자 전문 양성소를 교육 시설이 우수한 기존 농대를 비롯, 농전에 부설로 설치하되 농업 전문대학이 없는 지역에는 시설농고의 부설로 설치, 1년간 농기계 및 작목체계 등 과학영농 기술을 숙달시킬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이를 양성대상을 새마을 청소년 회원중 농고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자로서 농어업에 뜻을 둔 모범 회원을 선발하고 이들이 전문 양성코스를 수료하면 현재의 1인당 2백만원에서 대폭증액, 5백만원 까지 농어업 정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수산 대출금리 1% 인하

— 9월 16일 부터 소급적용 —

농수산부는 9.16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농투사업자금을 비롯, 농산물 유통가공 및 농업 기반조성 등 중장기 농수산 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1%포인트인하, 지난 9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8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는 9.16조치에 따라 일반금리와 국민투자기금 금리가 인하된데 따른 것으로 채소 과수 용수개발 등 농특사업을 비롯 농수산 물유통 가공사업, 새마을종합개발, 농업기반조성, 농어촌 부업단지 사업등에 투입되는

중장기 농업개발 자금금리의 대출금리를 18.5%에서 17.5%로 1%포인트 인하했다.



△ 정부는 농수산 대출금리를 1% 인하했다

## 하바드그룹 선진 양계지 시찰단 미국으로 출발

— 부화인들로 구성 10월 28일 출국 —



(이 상 윤)



(민 덕 기)



(이 규 상)



(신 홍 종)

선진 양계지의 새로운 기술 습득과 정보를 모색함으로서 심화되고 있는 양계업의 불황을 속히 탈피하여 활로를 찾아 안정된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미국 하바드농장 시찰단이 지난 10월 28일 김포 공항을 출국했다.

부화인들로 구성된 이번 하바드그룹 시찰단은 미국의 하바드농장 견학과 주요 선진 양계장의 방문으로 종제관리, 계열생산, 경영 등에 관해 견학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럽의 여

러 양계 관련 산업을 방문 할 예정이다.

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상윤(한국 하바드원종농장 대표, 본회 이사)

민덕기(덕일농장 대표, 본회 채란분과 위원장)

신홍종(고창양계 대표, 본회 전북지부장)

이규상(유일농원 대표)

김인영(양지부화장 대표)

김진영(봉산농장 대표)

김홍영(한홍목장 부화장 대표)

## 돼지고기 값 1천 6백원으로 인상

— 서울시, 물가대책 심의위 안정 —

서울시는 돼지고기 값을 현재 6백g당 1천 4백원에서 1천 6백원으로 2백원 인상, 10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물가대책 심의위는 10월 14일 전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최근 산지의 돼지 값이 크게 올라 육류 연동제에 따른 2백 원 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돼지고기 값 인상은 지난 7월부터

적용한 육류가격 연동제 실시 이후 세번째인데 돼지고기값만 인상하고 쇠고기 값은 6백 g당 3천 2백원의 종전 가격대로 결정했다.

최근 시내의 대부분 정육점은 판매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돼지고기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데가 하면 경락가격 인상을 내세워 일반 정육점에 대한 돼지고기 공급을 꺼려하고 있어 돼지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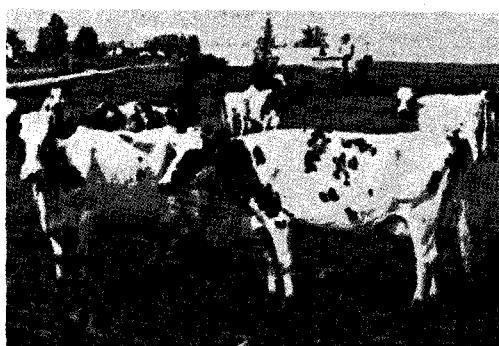
## 낙농농가 경영개선 시급 — 축진, 기술지도 사업결과 —

우리 나라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아직도 비합리적인 경영을 계속, 경영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축산진흥회가 최근 젖소능력 검정사업지구내의 34개 목장 5백91마리의 젖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양관리, 질병예방등 기술지도 사업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축사 시설의 불합리로 인한 사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양간의 두엄을 처리 할 퇴비장의 미설치로 환경위생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축진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술 지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주시로 지도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순회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특히 기술 지도사업 지역을 현재의 3개 지구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 기술지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대부분의 낙농농가가 아직도 비합리적인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주요 도시의 양계산물 소매 가격

미국 농무성이 조사 발표한 80년 7월 1일 현재의 세계주요도시의 식품 소매점의 양계산물 소매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US \$)

	부로일러 (kg)	제란 (12개)
본	2.66	1.63
캄 베 라	2.57	1.51
런 던	2.64	1.79
백 시 코	2.15	0.74
오 타 와	2.00	0.97
로 마	3.07	1.65
부에노스아이레스	3.19	1.84
와싱톤	1.08	0.72
동경	3.77	1.03
평균	2.65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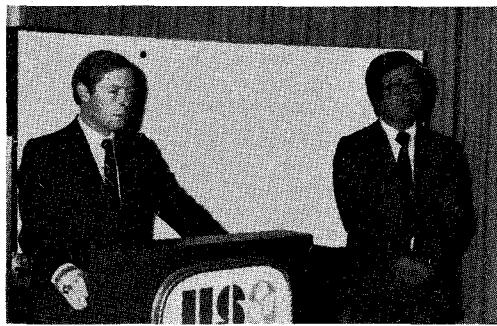
## 채유용 농작물 생산

### 전 세계적인 감소 현상.

1980 /81년에도 채유(採油)용 농산물의 생산이 1979 /80년도 대비 약 600만 톤이 줄어든 1억 7천 5백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 S A (미국 대두 협회) 자료에 의하면 특히 캐나다가 주산인 Rapeseed 및 Flaxseed의 생산은 각각 50% 이상 감소 될 전망이고 남미 지방에서의 대두박 생산 역시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미국산 옥수수의 품질에 관한 세미나 개최 — 농무성 연방 곡물검사국의 등급결정, 검사절차 등의 소개 —



△ 연사 Mr. Roy Barrett와 통역을 하는  
민병렬 차장

미국농무성 연방 곡물검사국, 미국 대사관 농무관, 미국 사료곡물 협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산 옥수수 품질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10월 16일 오후 미국 대사관 농업무역관에서 축진, 사료 협회, 사료 공장, 농협 등 관련업체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날 연사로 초빙된 미국 농무성 연방곡물검사국 검사관 Mr. Roy Barrett는 현행 곡물 수출에 관한 곡물 검사제도와 선적, 훈증 소독등에 관한 슬라이드를 통해 금후 미국 곡물의 수입국들에게 안심하고 곡물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미국 옥수수 등급제도에 언급 등급을 규정지을 때 측정되는 무게, 수분, 파손립과 이물질 손상립등에 대한 등급결정 요소 및 방법을 제시하고 등급검정을 거쳐 미국 곡물 표준법에 의해 등급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시

일의 경과, 장소의 이동, 보관, 정확한 표본 추출등의 많은 문제점에 애로가 있다고 발표 했다.

이어서 아프라톡신 (Aflatoxin or Microtoxin :곰팡이 종류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물질)에 언급 현행검사의 난점으로 자료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한편 발상 피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농무성 연방 곡물 검사국의 기구, 새로운 연구 동향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 도계장 시설 자금 지원

### — 축진 진해시에 7천 7백 만원 —

축산 진흥회는 도계의 위생적인 처리와 시설 현대화로 축산물의 유통질서 정비를 위해 경남 진해시 도계장에 육성자금으로 7천 7백 만원을 배정, 지원했다. 축진에 따르면 도계장 육성자금 지원은 일부 무허가 도계업자들의 밀도살과 생체 거래로 인한 비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을 저지, 도계장의 시설 현대화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축진은 올들어 이미 춘천 축협과 양평, 여주 축협 등에 도계장시설 육성 자금으로 모두 1억 7천만원을 농협을 통해 배정, 지원 했으며 앞으로도 도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육성자금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 시도지사 농지전용 허가권 축소

### — 농수산부, 불법전용 행위 강력단속 —

정부는 계속된 농지보존 시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고 있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시도지사에 위임된 3천평 이하의 농지전용 허가권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한편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는 야산개발 및 개간 등으로 지난해 8천 정보의 새로운 농경지가 조성됐음에도 지난 연말현재 절대농지가 1백12만 3천 65정보로 전년 말보다 2천 1백 정보가 줄어들었고 전체 농경지가 2백20만 7천정보로 작년 말의 2백22만 2천 정보에 비해 오히려 1만 5천 정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타목적으로 전용된 2만 3천 정보

의 농경지 가운데 농수산부가 道路등 각종 公共시설과 공장건설을 위해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은 2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시도지사에 위임된 3천평 이하의 농지전용이 과용내지 악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앞으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法律시행령을 고쳐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3천평이하의 상대농지 및 3백 30m<sup>2</sup>이하의 절대농지전용 허가권을 1천 5백평이하 및 2백m<sup>2</sup>이하 등으로 축소키로 하는 한편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회복토록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 한우 기술지원 사업 실시

### — 축진, 전국 8개도 대상 —



△ 축진의 한우기술 지원 사업

축산진흥회(회장: 김일로)는 10월 13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한우 계통번식 사업지구에 대한 사양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술지원 사업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의 한우 계통번식내의 한우 6백40두를 대상으로 각종 사양관리 기술보급은 물론 번식장애우 발견 치료 및 일반질병 진단과 투약을 무료로 해줄 예정이다.

79년 중 우리나라 농가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2백22만 7천 5백원으로 전년대비 18.2%의 증가에 그쳐 농가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낙농 비육협회 창립총회 개최

### — 낙농협회와 기업목장협회 통합 —

당국의 유사단체 통폐합 지시에 의거 한국 낙농협회와 기업목장협회가 통합하여 사단법인 한국 낙농비육협회로 창립총회를 지난 10 월 31일 축산회관 2층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한국 낙농비육협회 초대 회장에 김태신씨(태신농장 대표)를 선출하고 부회장에 안관성(홍산목장 대표)씨와 문상갑(두산개발(주) 대표이사 전무)씨를 각각 선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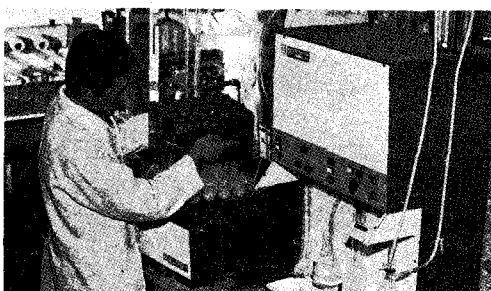
한편 기업목장협회는 지난 24일, 한국 낙농

협회는 27일 각각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금년 12월 31일부로 잔무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국 낙농비육 협회로 새로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 축산 단체연합회도 지난 28일 동회 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축산 단체연합회의 통합 또는 개편에 대한 안건을 다루어 양봉협회, 양토협회, 양록협회를 받아들여 한국 축산회로 할 것을 논의했다.

## 국립보건 연구원 기능 강화

### — 연내조직 개편 미 F D A 수준으로 육성 —



△ 보사부는 국립보건연구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 사회부는 의약품 및 식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보건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내 조직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보사부에 의하면 현재 1국 6부로 되어 있

는 국립보건 연구원 직제를 2실 1국 13부로 개편 정원을 현행 2백 73명에서 4백 32명으로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식·의약품의 검증 업무를 신속·안전하게 수행키 위해 국립보건 연구원 부지 내 2천평에 「식품·의약품 안전성 연구센타」(가칭)를 신설, 국립보건 연구원 산하에 두기로 했다.

동센타는 내년까지 21억원(외자)을 들여 최신 검증시설 및 장비 1백 21종을 도입,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보사부는 국립보건 연구원의 기능이 강화되면 미국의 식품의약국(F D A)과 유사한 검증연구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우유수매자금 20억 추가지원

### — 유가공업체 자금압박 해소위해 —

농수산부는 유가공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낙농가에 대한 원유대 자금회전을 원활화하기 위해 20억 원의 올 우유수매자금 추가분을 지원했다.

10월 21일 농수산부가 한국 유가공 협회를 통해 지원한 추가분 우유수매 자금은 낙농가로 부터 원유를 수매하는 유가공업체(낙농계 조합포함)로서 유제품을 생산 비축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1년 상환조건 기간에 연리 17.5%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전지분유, 탈지분유, 조제분유, 연유인데 한국 유가공 협회가 관련

업계로부터 구성한 자금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정한 금액을 9월 말 현재기준을 비율로 유제품 재고량을 원유 환산량대로 용자금을 배정한다.

농수산부는 올 들어 유제품의 판매 부진과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모두 97억 원의 축산 기금을 낙농가에 지원했다.

## 일본의 감별 기록 3분 08초

9월 29일 개최된 제21회 일본 감별사 경진 대회(전일본 초생추 감별협회 주최)에서 (36명 참석) 1위의 성적은 3분 8초로 脫部氏까 5년 연속 우승을 차지 하였다.

## 한국화이자, 제 6회 판매점 세미나 개최

### — 25, 26 양일간 반도유스 호스텔서 —



△ 화이자는 판매점 세미나를 동물약품 도매상 종업원을 상대로 실시했다

한국화이자 주식회사 농축부(부장 : 김종상)가 주최하는 전국 판매점 세미나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 까지 2일간에 걸쳐 영동 반도 유스 호스텔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판매점 세미나는 그동안 동물약품 판매점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왔으나 금년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판매 담당자들을 중점적으로 현대적인 판매기법, 화이자의 신제품과 질병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 '80 전국 축산진흥대회 성료 — 충북 청주종합운동장에서 —



농수산부가 주최하는 80년도 축산진흥 대회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청주 종합 운동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한우 6부문 56두, 육우 교잡우 5두, 우유 3개부문 27두, 돼지 2부문 36두 등 총 124두가 출품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Mr. 황소는 충남 보령군 남포면 읍내리 金相元 씨의 2년 10개월 된 종모우(7백 40kg)가 한우 챔피언 상을 받았다. 이 숯소는 상금 1백만원의 시상과 함께 축산 진흥회가 2백만원에 사서 한우 개량용으로 기르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축산 가공품, 배합 사료, 동물 약품, 축산기자재 등의 전시회도 함께 베풀어졌다.

### 업계 단신

○ 한일농원 광주사무소 : (34) 2155로  
전화번호 변경.

○ 제일제당〈주〉 : 인천 제1공장에 총 공  
사비 23억원을 투입 지난 3월에 착공한 자가  
발전 설비를 10월 24일 완공. 자급전력으로  
동사는 제품원가 절감이 가능.

○ 〈주〉한국고킹(대표 : 이수영) : 서울  
사무소 이전 및 공장전화번호 변경.  
서울 사무소 : 중구 소공동 50-5 (동명빌딩  
607호) ☎ (28) 1231 공장전화번호 : (633)  
7849

○ 한풍 산업〈주〉 (대표 : 최죽송) : 사  
세화장에 따라 전화 증설  
서울사무소 : ☎ (28) 1958, (22) 1120, 4887  
본사 : ☎ (안양) 2-5553

○ 미국 대두협회(한국대표 : 이경원)  
: 대두의 홍보와 연관산업 소비자들에게 실  
질적이고 실용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정보와 시장경제정보 등을 수  
록한 News Letter紙를 월간으로 발행.

창간 : 1980년 9월 1일

발행인 : 이경원

편집인 : 조세영



(이 경 원)



(이 창 열)

○ 同心會 (회장 : 이창열) : 양계업계 원  
로들의 모임인 동회는 10월 정기 월례회를 지  
난 25일 청계천 7가 우촌각에서 개최

○ 국제 수리기술자 교육 실시 : 농업진흥공사(대표 : 조광희)는 10월 27일부터 11월 8일 까지 2주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9국개국 고급 수리기술자(水利技術者) 3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FAO 요청으로 농업부문 기술이 취약인 동남아 9개국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농업과 관개사업, 경지정리, 농민조직과 농사시범, 농촌지도사업 등이 중점 지도 된다.

○ 새한축산(대표 : 오위문) : SEMEX CANADA 한국대리점 개설, 가축약품, 축산기구, 냉동 정액 등을 취급  
사무실 : 서울 특별시 남대문로 4가 55~4 ☎ (777) 2926

○ 월간 현대양계사(대표 : 김중곤) : 중구 풀동2가 16-9(한국의집 정문앞)로 사무실 이전.

○ 대일유업(주) : 위생적인 카튼팩에 포장된 시유를 미국 IPC사와 기술제휴로 생산 개시.

○ 죄영규(한국 유가공협회 회장) : 10월 15일 일신상의 이유로 한국 유가공협회 회장직을 사임.

○ 수입육공급중단 : 축산진흥회는 한우 가격의 하락에 따라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10월 27일부터 한우가격이 회복될때 까지 하루 평균 4백 마리씩 공급하던 수입육 공급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 수의사개업 절차 간소화 : 농수산부는 현행 수의사법을 개정, 지금까지 수의사를 개업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가능케 했다.

○ 물금계우회 창립 : 본회 부산·경남지부 관내 양산 물금의 양계인들은 상호친목과 단합을 위해 물금계우회 창립총회를 지난 10월 14일 개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이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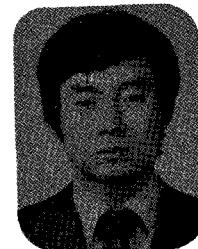
총무 : 도종호

감사 : 김재형, 이주수.

○ 삼양식품(주) : 미국 카네이션사와 기술제휴로 최신 기술과 시설에 의한 서구식 우유의 맛을 내는 「대관령 우유」를 본격생산 시판 개시.

○ 삼화농원(대표 : 배선목) : 사세화장 확에 따라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고 남기형(전 삼일농원)씨를 주재원으로 기용.

서울사무소 ☎ 777-2530



(남기형)

○ 서부배합사료(주) (대표 : 변종익) : 사세화장에 따라 기획관리부에 이효신(건대 축대졸)씨를 특채.

○ 한풍산업(주) (대표 : 최죽송) : 김성훈(성대졸)씨를 특채.

○ 중앙축산(주) (대표 : 강태현) : 영업부에 이경민(건대 축산과졸)씨를 기용.

○ 이글케미칼공업사(대표 : 강승조) : 기획부에 정정우(서울수의대 졸)씨를 특채